

한-일 무역분쟁의 국내 주력 제조업에 대한 영향 및 대응 실태조사

요 약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인해 국내경기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올 들어 미-중 무역분쟁의 심화에 이어 일본과의 무역분쟁 여파로 국내외 경기 여건의 불확실성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대비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국내 주력 제조기업들을 대상으로 일본 수출규제의 영향과 대책 관련 설문조사를 수행(총 1,051개 기업 응답, 9월 16~27일)하고, 그 결과를 살펴보았다. 먼저, 일본의 수출규제 영향을 받는다는 기업은 전체 응답 기업의 약 15%를 차지하고, 그중 대부분이 부정적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이차전지와 일반기계, 반도체, 자동차 등의 순서로 부정적 영향을 많이 응답하였다. 국내 기업들의 경영활동에 본격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점과 관련해서는 올해 이후 내년 까지도 예상하는 기업들이 상당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태의 장기화 시에 별다른 대책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들이 많았고, 대체 조달선 확보나 국산화 추진을 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향후 1~2년 이내를 소요 기간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정부는 소재부품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중이지만, 이번 무역분쟁 사태의 영향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점에서 기업들이 받는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원하고, 국내 기업들도 소재부품 관련 수입선 및 조달선을 다변화하는 노력과 함께 소재부품 관련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여 소재부품의 경쟁력 향상에 일조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난 7월 일본의 대한민국 수출품목 규제로 시작된 한-일 무역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국내 주력 제조업에 미칠 영향과 기업들의 대응력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7월초 우리나라에 대하여 반도체 관련 소재부품의 수출규제 조치를 일방적으로 단행한 데 이어, 8월에는 우리나라를 전략물자 수출관리제도 운용상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전격적으로 배제하는 시행령을 공포하고, 8월 말부터 시행 중이다. 이에 우리 정부도 일본을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 명단에서 제외시키고, WTO에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공식 제소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올 들어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심화로 글로벌 경기 둔화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과의 무역분쟁 여파로 인해 국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향후 파장 및 대응 상황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올 하반기 들어 부각된 일본과의 무역분쟁에 대하여 국내 주력 제조 기업들이 체감하고 있는 정도와 그 세부적인 내용, 대응책 등과 관련해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살펴보고자 한다. 본 조사는 산업연구원(KIET)에서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제조업 경기조사에 부가 설문하는 방식으로 지난 9월 중 약 1,051개의 제조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¹⁾ 설문의 주요 내용은 일본과의 무역분쟁에 따른 영향 여부와 그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사태의 장기화 시 자체 대응책과 정부에 바라는 대책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1. 한-일 무역분쟁의 영향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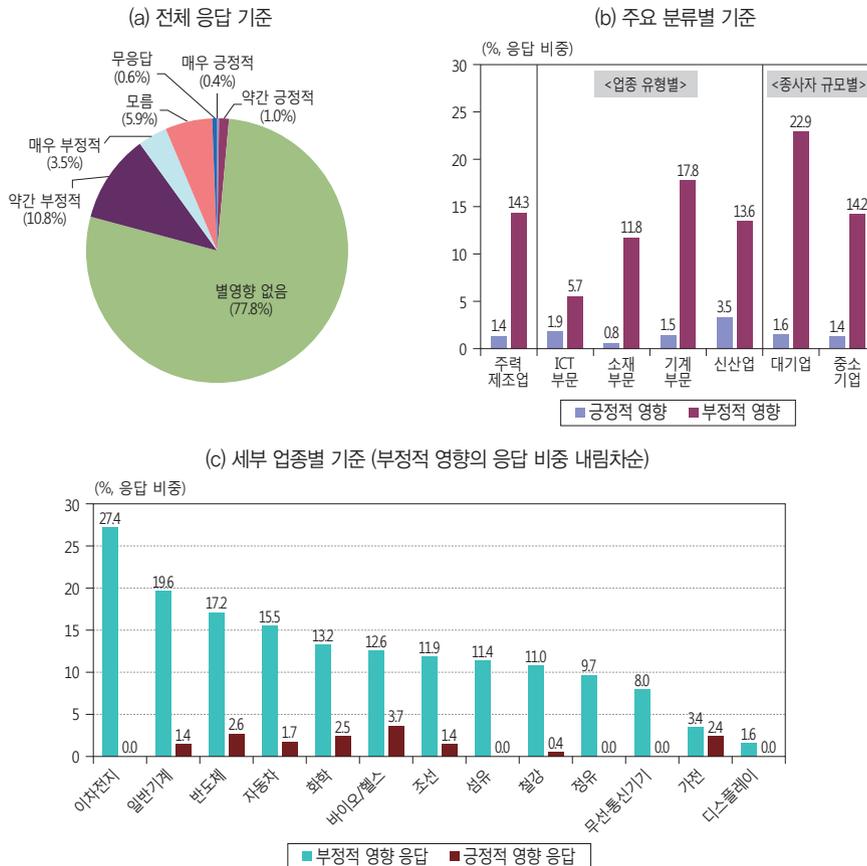
우선 일본과의 무역분쟁으로 인한 영향과 관련해서 전체 응답 기업의 약 15% 정도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중 대부분이 부정적 영향을 응답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부 항목별로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무역분쟁으로 인한 영향이 아직 '별로 없다'는 응답이 약 77.8% 비중을 차지하여 가장 많은 가운데 부정적 영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약 14.3%를 차지하고, 긍정적 영향을 응답한 비중은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부터 촉발된 한-일 무역분쟁이 국내 주력 제조기업들에 미치는 영향력은 아직 크지 않아 보이나, 무역분쟁의 영향을 받고 있는 기업들은 대체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음을 시사한다.

1) 응답 기업의 분포는 본문 말미의 <설문 개요> 참고바랍니다.

응답 기업들을 주요 분류별로 살펴보면, 업종 유형별로는 기계부문(17.8%)과 신산업(13.6%) 등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응답하였고, 종사자 규모별²⁾로는 대기업(22.9%)이 중소기업(14.2%)에 비해서 부정적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산업에서는 특히 이차전지(27.4%)가 일본과의 무역분쟁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계부문에서는 일반기계(19.6%)와 자동차(15.5%), ICT부문에서는 반도체(17.2%) 그리고 소재부문에서는 화학(13.2%) 등의 업종에서 각각 부정적 응답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일본과의 무역분쟁에 따른 긍정적 영향은 신산업에서 바이오/헬스(3.7%), ICT부문에서는 반도체(2.6%)와 가전(2.4%) 그리고 소재부문의 화학(2.5%) 등을 중심으로 있는 모습이나, 한 자릿수 비중에 그치면서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 본고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종사자 수 300인을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그림 1〉 한-일 무역분쟁의 영향 여부에 대한 설문 결과



일본과의 무역분쟁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경영활동에 본격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점과 관련한 설문에서는 현재 이미 영향을 받고 있거나 연내(향후 3개월 이내)로 예상하는 기업들이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나머지 업체들도 대부분 내년 상반기까지 본격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이번 무역분쟁의 영향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일 무역분쟁으로 인해 '이미 영향을 받고 있다'는 응답이 약 32.4%, '향후 3개월 이내'로 영향이 예상된다는 응답이 약 15.1%의 비중을 차지하여 일본과의 무역분쟁으로 영향을 받는 기업들의 절반 가까이(총 47.5%)가 적어도 올해 말까지 경영활동에서 본격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하였다. 이어서 '향후 4~6개월 이내'로 예상하는 응답이 약 21.5%, '향후 7개월~1년 이내'와 '향후 1년 이상 이후'로 예상하는 응답은 각각 17.5%와 12.1% 등의 순서로 조사되었다. 궁극적으로 한-일 무역분쟁이 국내 주력 제조기업들의 경영

〈표 1〉 한-일 무역분쟁이 국내 경영활동에 본격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점

단위 : %, 응답비중

	이미 영향을 받음	향후 3개월 이내	향후 4~6개월 이내	향후 7개월~1년 이내	향후 1년 이상 이후	무응답	합계	
주력 제조업 전체	32.4	15.1	21.5	17.5	12.1	1.5	100.0	
업종 유형별	ICT부문	51.4	-	4.2	22.0	-	22.4	100.0
	반도체	50.9	-	13.4	31.1	-	4.7	100.0
	디스플레이	-	-	-	100.0	-	-	100.0
	가전	41.8	-	-	16.4	-	41.8	100.0
	무선통신기기	86.0	-	-	14.0	-	-	100.0
	소재부문	46.4	13.4	16.2	10.0	13.9	-	100.0
	정유	-	-	82.6	17.4	-	-	100.0
	화학	27.3	24.7	18.7	12.9	16.4	-	100.0
	철강	39.4	-	9.1	16.9	34.5	-	100.0
	섬유	63.4	10.0	15.5	5.6	5.6	-	100.0
	기계부문	25.9	16.8	25.5	18.8	12.5	0.6	100.0
	일반기계	21.9	14.0	31.5	18.4	14.2	-	100.0
	자동차	34.1	22.3	13.5	21.4	8.6	-	100.0
	조선	33.9	23.3	10.6	10.6	10.6	11.1	100.0
	신산업	22.2	17.2	17.2	33.3	10.1	-	100.0
바이오/헬스	22.7	16.5	16.5	32.9	11.4	-	100.0	
이차전지	18.1	22.8	22.8	36.3	-	-	100.0	
종사자 규모별	대기업	30.6	16.6	9.3	27.2	12.9	3.4	100.0
	중소기업	32.5	15.0	21.7	17.3	12.1	1.4	100.0

활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내년 상반기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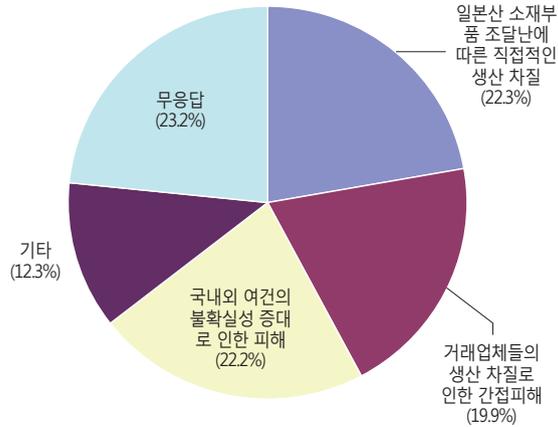
업종의 유형별로는 ICT부문과 소재부문이 올해 말까지 기업들의 경영활동에서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조사(ICT부문 51.4%, 소재부문 59.9%); ‘이미 영향을 받음’과 ‘향후 3개월 이내’ 응답의 합계 기준)되었다. ICT부문에서는 반도체와 무선통신기기 등을 중심으로 이미 영향을 받고 있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고, 소재부문에서도 화학과 섬유 등을 중심으로 연내 가시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응답이 약 60% 비중으로 집계되었다. 기계부문과 신산업의 경우에는 올해 이후 기업들의 경영활동에서 본격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기계부문 56.7%, 신산업 60.6%); ‘향후 4~6개월 이내’와 ‘향후 7개월~1년 이내’, ‘향후 1년 이상 이후’ 응답의 합계 기준)하고 있어 한-일 무역분쟁이 국내기업들의 경영활동에 대한 영향력은 내년 까지도 지속될 전망이다.

2. 한-일 무역분쟁의 파급 영향

일본과의 무역분쟁이 국내 주력 제조기업들에 미치는 파급 영향으로는 긍정적인 부문과 부정적인 부문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그 세부 내용으로는 일본산 수입 품목의 감소에 따른 국내 생산 및 수요의 변화, 국내 원하청 및 거래 업체들의 생산 변화로 인한 간접적인 영향, 국내외 여건의 불확실성 요인과 정부의 지원정책 강화에 따른 수혜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일본과의 무역분쟁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으로는 일본산 수입품목의 조달난에 따른 생산 차질이나 국내외 여건의 불확실성 증대 등이 가장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일본산 소재부품 조달의 어려움에 따른 직접적인 생산 차질(22.3%)과 국내외 여건의 불확실성 증대로 인한 피해(22.2%) 등이 전체 응답 기업의 약 22%를 각각 차지하면서 부정적인 요인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었고, 이어서 현재 거래 중인 원하청 업체들의 생산 차질로 인한 간접적 피해(19.9%)가 약 20%의 응답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산 소재부품의 조달난에 따른 직접적인 생산 차질은 소재부문(정유, 화학 등)과 기계부문(일반기계, 조선 등)에서 많이 응답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거래 중인 원하청 업체들의 생산 차질로 인한 간접적 피해는 ICT부문(디스플레이와 무선통신기기 등)을 중심으로 언급되었으며, 국내외 여

〈그림 2〉 일본과의 무역분쟁에 따른 부정적 영향의 세부 내용



건의 불확실성 증대로 인한 피해는 신산업을 중심으로 많이 응답하였다.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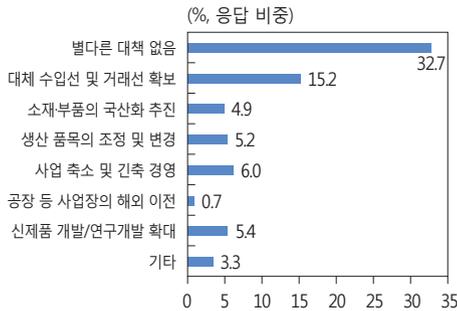
한편, 한-일 무역분쟁에 따른 긍정적 영향은 일본산 제품에 대한 반감 효과의 영향(40.7%)이 가장 크고, 정부의 국산화 정책 강화에 따른 수혜 영향(19.2%) 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본산 제품에 대한 반감 효과의 수요 증대 영향은 특히 기계 부문(일반기계와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많이 응답하였고, 국산화 관련 정부 정책의 지원 수혜 영향은 화학과 바이오/헬스 등에서 응답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본산 경쟁 품목의 수입 감소에 따른 국내 주문 수요 증가 영향은 주로 반도체와 바이오/헬스 등에서 언급되었다.

3. 국내 기업들의 대응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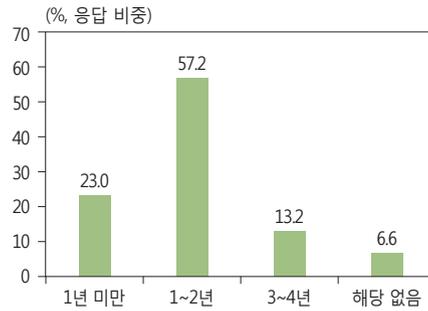
한-일 무역분쟁이 장기화되는 경우에 국내 주력 제조기업들이 고려하는 대응책과 관련해서 아직 별다른 대책이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대체 수입선이나 거래선 확보, 생산 품목의 조정 내지 변경 등을 일부 기업들이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본과의 무역분쟁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경우에 ‘별다른 대책이 없다’는 응답은 전체의 약 32.7%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대체 수입선 또는 거래선 확보를 고려한다는 응답이 약 15.2% 그리고 사업 축소 및 긴축 경영(6.0%)과 신제품 개

3) 주요 분류별 및 세부 업종별 응답 결과는 〈부표 1〉을 참고바랍니다.

〈그림 3〉 무역분쟁 장기화 시의 대책



〈그림 4〉 대체선 확보 및 국산화 완료 시점



발 및 연구개발 확대(5.4%) 등의 순서로 많이 응답하였다. 업종 유형별로는 전 부문에 걸쳐 별다른 대책이 없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가운데 대체 수입선과 거래선 확보를 고려 중이라는 응답은 소재부문과 신산업 등에서 많았고, 소재부품의 국산화 추진은 특히 ICT부문을 중심으로 많이 응답하였다. 생산 품목의 조정 내지 변경이나 사업 축소 및 긴축 경영 등은 신산업과 기계부문을 중심으로 많이 응답하였고, 신제품 개발 및 연구개발 확대는 소재부문과 기계부문 등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언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⁴⁾

대체 조달선을 모색하거나 소재부품의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그 소요 기간을 ‘향후 1~2년’(57.2%)으로 예상하는 응답이 많아 기업들의 지구 대응책으로서 이번 무역분쟁의 영향에서 벗어나기까지는 일정 기간이 필요해 보인다. 전 업종의 유형에 걸쳐서 ‘향후 1~2년’이라는 응답이 많았고(ICT부문 65.2%, 소재부문 61.9%, 기계부문 50.4%, 신산업 100.0%), 특히 ICT부문에서는 ‘향후 3~4년’의 기간을 예상하는 기업들(25.2%)도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소재부문의 정유와 철강 업종에서 향후 1년 내에 동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는 기업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종사자 규모별로는 대기업의 경우 향후 1년 내에 대체 조달선 모색이나 소재부품의 국산화 추진이 가능하다고 보는 응답(71.4%)이 많았던 반면에, 중소기업은 향후 1~2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보는 응답(57.9%)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일본과의 무역분쟁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국내 주력 제조기업들이 정부에 바라는 대응책으로서 국산화 관련 지원 확대(17.4%)와 연구개발 및 투자자금 지원(16.9%), 피해 기업들에 대한 세제혜택(16.4%) 등을 많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4) 주요 분류별 및 세부 업종별 응답 결과는 <부표 2>를 참고바랍니다.

〈표 2〉 한-일 무역분쟁으로 정부에 바라는 대응 조치

단위 : %, 응답 비중

	연구개발 및 투자 자금 지원	피해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투자 확대 관련 규제 개선	대체 수입선 확보 지원	국산화 관련 재정 지원 확대	기타	무응답	합계	
주력 제조업 전체	16.9	16.4	5.9	9.3	17.4	9.2	24.9	100.0	
업종 유형별	ICT부문	8.0	1.1	-	7.2	32.7	15.2	35.7	100.0
	반도체	8.7	-	-	8.7	53.1	-	29.6	100.0
	디스플레이	-	100.0	-	-	-	-	-	100.0
	가 전	9.4	-	-	-	23.9	23.9	42.7	100.0
	무선통신기기	-	-	-	43.0	43.0	-	14.0	100.0
	소재부문	10.0	8.6	4.0	14.4	11.9	19.8	31.2	100.0
	정 유	-	-	-	70.4	-	-	29.6	100.0
	화 학	25.0	5.9	7.9	7.9	7.9	14.5	30.9	100.0
	철 강	1.2	3.6	-	2.5	19.6	4.9	68.2	100.0
	섬 유	2.7	12.4	2.7	22.1	12.4	29.0	18.7	100.0
	기계부문	18.9	20.8	8.0	7.2	17.5	4.9	22.7	100.0
	일반기계	16.2	28.3	6.6	6.5	18.5	6.6	17.3	100.0
	자동차	26.3	3.7	13.5	8.6	12.8	-	35.0	100.0
	조 선	16.4	16.0	-	8.0	25.6	8.0	26.0	100.0
	신산업	35.8	21.3	-	10.6	23.7	-	8.6	100.0
	바이오/헬스	37.3	21.6	-	9.7	26.5	-	4.9	100.0
이차전지	22.8	18.1	-	18.1	-	-	40.9	100.0	
종사자 규모별	대 기업	8.8	13.3	3.2	11.9	10.1	9.0	43.7	100.0
	중소기업	17.1	16.4	6.0	9.3	17.5	9.2	24.5	100.0

ICT부문에서는 국산화 관련 재정지원 확대 요구(32.7%)가 상대적으로 많았고, 신산업에서는 연구개발 및 투자자금 지원(35.8%)을 가장 많이 응답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계부문에서는 피해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20.8%)과 연구개발 및 투자자금 지원(18.9%), 국산화 관련 지원 확대(17.5%) 등 다양한 대책들을 고른 비중으로 응답하였고, 소재부문에서는 대체 수입선 확보 지원(14.4%)을 상대적으로 많이 응답하였다. 무역분쟁의 영향을 받는 기업들의 정책수요가 이처럼 다양하다는 관점에서 정부도 실효성 있는 정책방안을 모색하고, 무엇보다도 기업들이 받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4. 결론 및 시사점

일본과의 무역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국내 주력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올 들어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심화와 함께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인해 국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한층 가중되고 있어 이와 관련된 보다 면밀한 고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고에서는 국내 주력 제조기업들이 일본과의 무역분쟁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영향을 받고, 구체적으로는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대응책을 고려하고 있으며, 정부에 바라는 대책들이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살펴보았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서 국내 주력 제조기업들이 받는 영향력은 아직까지 크지 않아 보이나, 경영활동에 본격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점으로 내년까지도 예상하고 있어 한-일 무역분쟁은 국내 기업들의 경영활동에 당분간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업종의 유형별로는 기계부문과 신산업, 소재부문 등의 순서로 부정적 영향을 많이 응답하였고, 세부 업종별로는 이차전지와 일반기계 그리고 반도체와 자동차 등의 순서로 부정적 응답이 많았다. 일본과의 무역분쟁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의 주요 내용으로는 일본산 소재부품 조달의 어려움에 따른 직접적인 생산 차질(소재부문, 기계부문 등)과 국내외 불확실한 경영 여건에 따른 피해(신산업 등) 등이 상당 수 있었고, 현 거래업체들의 생산 차질로 인한 간접적인 피해(ICT부문 등)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번 무역분쟁의 영향을 받고 있는 기업들은 사태의 장기화 시에 별 다른 대책이 없다는 응답이 많았고, 대체 조달선을 모색하거나 소재부품의 국산화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향후 1~2년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응답이 많아 무역분쟁으로 인한 일부 차질과 피해는 당분간 불가피해 보인다.

한-일 무역분쟁이 예상치 못한 사태임에도 그 영향이 아직까지는 제한적으로 보이나, 우리 경제와 산업에 주요 위협 요인으로 자리하고 있어 이를 예의주시하면서 관련 대응책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미 소재부품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며, 그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이번 사태의 영향이 내년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소재부품의 경쟁력 제고와 국산화 추진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중장기 관점에서 소재부품 관련 대책들을 일관성 있게 유지시켜 나가고, 정책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국내 기업들도 소재부품의 수입선 및 조달선을 다변화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소재부품 관련 자체 연구개발 투자에 주력하여 소재부품 경쟁력 향상에 일조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번 일본과의 무역분쟁 사태가 우리 경제와 산업에 위협 요인이나 기회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정부와 유관 기관들의 긴밀한 공조와 협력 체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㉞

〈설문 개요〉

- 설문 기간 : 2019년 9월 16일 ~ 9월 27일
- 설문 방식 : 온라인 응답 및 전화/팩스 설문지 회수
- 전체 응답 기업 수 : 총 1,051개 업체

〈표 3〉 응답 기업 분포

		응답 기업 비중(%)
주력 제조업 전체		100.0
업종 유형별	ICT부문	16.9
	반도체	4.8
	디스플레이	3.2
	가 전	5.1
	무선통신기기	3.8
	소재부문	32.5
	정 유	1.7
	화 학	11.2
	철 강	8.3
	섬 유	11.3
	기계부문	40.9
	일반기계	19.4
	자동차	14.6
	조 선	6.9
	신 산업	9.6
	바이오/헬스	7.8
이차전지	1.8	
종사자 규모별	대 기업	10.6
	중소기업	89.4

〈부표 1〉 일본과의 무역분쟁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의 세부 내용

단위 : %, 응답 비중

		일본산 소재·부품 조달난에 따른 생산 차질	원·하청 업체들의 생산 차질로 인한 간접 피해	국내외 여건의 불확실성 증대로 인한 피해	기타	무응답	합계
주력 제조업 전체		22.3	19.9	22.2	12.3	23.2	100.0
업종 유형별	ICT부문	-	43.7	-	38.9	17.3	100.0
	반도체	-	61.3	-	-	38.7	100.0
	디스플레이	-	100.0	-	-	-	100.0
	가전	-	-	-	100.0	-	100.0
	무선통신기기	-	86.0	-	-	14.0	100.0
	소재부문	28.2	12.6	25.0	6.6	27.7	100.0
	정유	82.6	-	-	-	17.4	100.0
	화학	44.4	10.2	4.4	13.7	27.4	100.0
	철강	2.8	26.1	1.4	5.4	64.3	100.0
	섬유	25.5	10.0	45.4	2.8	16.4	100.0
	기계부문	21.3	21.1	20.3	14.2	23.2	100.0
	일반기계	23.3	25.4	16.4	16.2	18.7	100.0
	자동차	15.0	9.6	27.0	9.5	38.9	100.0
	조선	26.0	23.6	36.1	11.8	2.4	100.0
	신산업	20.9	25.4	48.1	-	5.6	100.0
	바이오/헬스	21.3	29.4	49.2	-	-	100.0
이차전지	18.1	-	40.9	-	40.9	100.0	
종사자 규모별	대기업	12.9	17.7	16.6	6.1	46.6	100.0
	중소기업	22.5	19.9	22.3	12.5	22.7	100.0

〈부표 2〉 한-일 무역분쟁 장기화 시 기업들이 고려하는 대응책

단위 : %, 응답 비중

		별다른 대책 없음	대체 수입선/ 거래선 확보	소재· 부품의 국산화	생산 품목 조정 및 변경	사업 축소 및 긴축 경영	공장 등 사업장의 해외 이전	신제품 개발 및 R&D 확대	기타	무응답	합계
주력 제조업 전체		32.7	15.2	4.9	5.2	6.0	0.7	5.4	3.3	26.7	100.0
업종 유형별	ICT부문	57.0	11.5	17.0	-	-	-	-	-	14.5	100.0
	반도체	22.0	8.7	31.1	-	-	-	-	-	38.3	100.0
	디스플레이	-	100.0	-	-	-	-	-	-	-	100.0
	가 전	100.0	-	-	-	-	-	-	-	-	100.0
	무선통신기기	-	43.0	43.0	-	-	-	-	-	14.0	100.0
	소재부문	37.4	19.2	-	1.3	-	2.7	6.8	0.5	32.1	100.0
	정 유	-	82.6	-	-	-	-	-	-	17.4	100.0
	화 학	22.4	29.5	-	-	-	7.9	-	1.4	38.8	100.0
	철 강	26.4	4.0	-	-	-	-	3.9	-	65.7	100.0
	섬 유	52.5	15.5	-	2.8	-	-	12.7	-	16.4	100.0
	기계부문	29.6	13.4	6.5	6.5	8.2	-	5.3	5.1	25.5	100.0
	일반기계	33.8	13.0	5.4	9.7	9.8	-	4.3	3.2	20.7	100.0
	자동차	9.9	14.4	10.7	-	5.7	-	8.6	10.7	40.0	100.0
	조 선	74.6	12.7	-	-	-	-	-	-	12.7	100.0
	신 산업	24.2	19.2	-	12.6	14.7	-	4.6	-	24.7	100.0
	바이오/헬스	22.7	21.6	-	11.4	16.5	-	5.1	-	22.7	100.0
이차전지	36.3	-	-	22.8	-	-	-	-	40.9	100.0	
종사자 규모별	대 기업	15.6	21.5	-	-	3.2	-	6.6	6.1	46.9	100.0
	중소기업	33.0	15.0	5.0	5.3	6.0	0.7	5.3	3.2	26.2	100.0



민성환

동향분석실·연구위원
shmin@kiet.re.kr / 044-287-3127

〈주요 저서〉

- 제조업 임금 변화의 영향에 관한 연구(2018, 공저)
- 제조업 고용의 구조적 특성과 변동요인 분석(2017, 공저)



강두용

동향분석실·선임연구위원
dykang@kiet.re.kr / 044-287-3205

〈주요 저서〉

- 수출 변화가 국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2017)
- 한국의 산업별 교역조건 결정요인 분석 및 시사점(2016, 공저)